

“문헌사·백제 서체 연구에 큰 획”

미륵사지 사리장엄 출토... 백제문화 연구 새 지평 열릴 것

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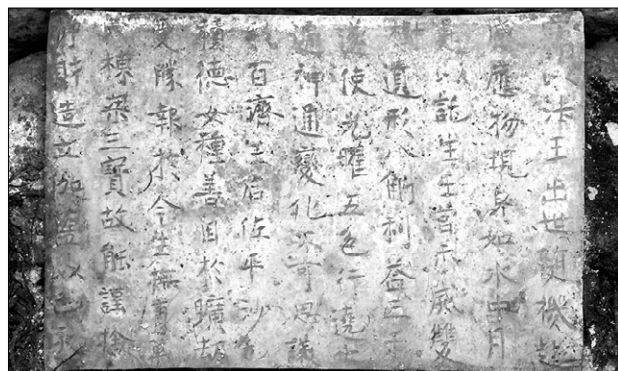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에서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에 버금가는 국보급 금제사리구가 출토됐다. 지금까지는 백제 사리구로는 충남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2007년 10월 출토)가 유일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이하 연구소)가 1월 19일 설명회를 개최한 익산 미륵사지 현장에는 취재진은 물론 학계,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몰리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금제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 은제관식 등 500여 점에 달하는 유물들은 주로 석탑 1층 심주 상면 중앙 사리공에서 14일 발견됐다.

작은 병에 보주형 뚜껑이 달린 금제사리호(높이 13cm, 어깨 폭 7.7cm)는 사리장엄의 핵심으로 사리공 중앙에 모셔져 있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금제사리호를 X선 내부 투시한 결과 내외함의 이중구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제사리봉안기(가로 15.5cm, 세로 10.5cm)는 주철로 글씨가 선명히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공사 중 발견된 금제사리호(오른쪽)와 금제사리봉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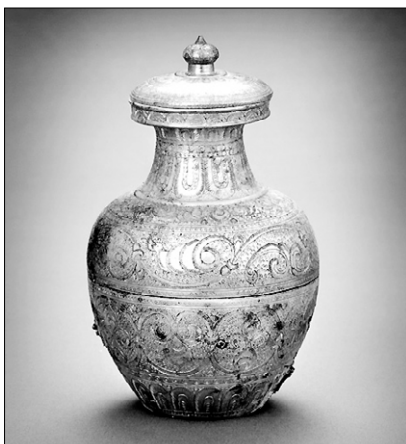
드러나 있다. 김상현 교수(동국대) 해석 결과, 백제 왕후가 재물을 회사해 익산 미륵사를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 639년)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내용이 있다.

김상현 교수(동국대)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은 “발견된 금제사리봉안기에는 미륵사의 창건목적과 시주(施主), 석탑의 건립연대 등이 정확히 밝혀져 있다”면서 “문헌사 연구의 부족함을 보완할 금석문 자료인 동시에 백제시대 서체(書體) 연구

에도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유물”이라고 말했다.

발견된 사리장엄은 다른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가 일괄로 출토됐다. 특히 정교하고 세련된 가공수법은 백제금속공예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동시에 국보급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국보급 유물로 평가된다.

이건우 정장은 “이번 사리장엄 발견으로 미륵사 창건에 관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기록의 정확성이 입증됐고 백제석탑의 사리봉안



기법과 의례를 새로이 밝힐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정장은 “이번 조사는 무령왕릉 발굴과 능산리 금동대향로 조사 이래 백제지역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로 판단된다”며 “백제문화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수습된 유물에 대해 보존처리 후 심층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관심 있는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한국불교전서 번역에 진력할 터”

한국불서 영역 대작불사 하는 찰스 윌러 교수

“무(無)자 화두를 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전 중이었는데 무엇인가 느껴졌습니다. 즉시 차를 세워 잔디를 내려다 봤습니다. 잔디는 너무나 선명한 녹색이었고... 잔디와 내가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무문관>을 읽는데 술술 읽히며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불교 전적을 한글과 영어로 옮기는 대작불사에 참여중인 찰스 윌러 교수(56·일본 동경대·사진)는 자신의 선제험을 설명했다. 윌러 교수는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위원장 지관, 이하 간행위) ‘원효팀’에서 영역화 작업 중인 학자. 원효팀 뿐 아니라 간행위 영역작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찰스 윌러 교수의 수행담은 불교학자도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듯 하다.

윌러 교수의 집안은 종교가 없었다. 물리학자인 부친 밑에서 자란 그는 동양사상과 종교에 자결과 관심을 갖게 됐다. 18세에 인도 요가, 명상을 배우려 명상센터를 다니다가 의과대학을



관두고 10여 년 동안 동양사상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다 수행했다. 만행(?)을 하던 윌러 교수는 27세에 미국 스토니브룩 주립대에서 성철 스님 제자이자 재미 불교학자인 박성배 교수를 만났다. 그로부터 원효사상 등을 배우며 한국불교에 심취했다. 찰스 윌러 교수는 “한국불교는 통불교”라고 말했다. “원효와 기화는 완벽한 열린 인식(Open-minded)의 소유자”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국불교에 대한 그의 열정은 조선 초기의 기화(己和) 선사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만 봐도 짐작된다.

윌러 교수는 20여 년을 한결 같이 매일 20분 이상 참선 수행을 한다. 경전을 보다 한문이 막힐 때면 책을 덮고 참선을 해왔다. 윌러 교수는 “간행위의

번역사업도 수행의 한 과정으로 생각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번역 작업 중 막힐 때면 팀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할 때면 서로 토론을 통해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간행위가 도입한 다자간 시스템 번역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윌러 교수의 간행위 작업 중 ‘원효 편’ 작업은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영역 전문가가 최소한 까닭에 다른 팀의 번역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는 “후학을 위한 한문-영어 사전편찬 작업 등으로 백백한 스케줄이지만 모두 수행인 까닭에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윌러 교수는 “한마음(一心)으로 원효회를 했던 원효 대사의 저서를 비롯해 한국불교전서 간행에 미력하나마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간행위는 1월 17-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차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본지 1월 14일자 보도 참조)

이나라 기자

금제사리봉안기 해석본

가만히 생각하건대, 法王(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의) 근기(根機)에 따라 감응(感應)하시고, (중생들의) 바람에 맞추어 몸을 드러내심은 물속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왕궁(王宮)에 태어나셔서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면서 8곡(偈)의 사리(舍利)를 남겨 3000 대천세계를 이익되게 하셨다. (그러나) 마침내 오색(五色)으로 빛나는 사리(舍利)를 7번 요잡(오른쪽으로 돌면서 경의를 표현)하면 그 신동변화는 불가사의 할 것이다.

나 백제 왕후는 좌평(佐平) 沙毛(사모)의 딸로 지금이 오렌 세월(曠劫)에 선인(善因)을 심어 금생에 뛰어난 과보(勝報)를 받아 만민(萬民)을 어루만져 기르고 불교(三寶)의 동량(棟梁)이 됐

기에 능히 정재(淨財)를 회사해 가람(伽藍)을 세우고, 기해년(己亥年) 정월 29일에 사리(舍利)를 받들어 맞이했다.

원하옵나니, 세세토록 공양하고 영원토록 다함이 없어서 이 선근(善根)을 자량(資糧)으로 하여 대왕패하(大王陛下)의 수명은 산악과 같이 견고하고 치세[寶曆]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여, 위로는 정법(正法)을 넓히고 아래로는 창생(蒼生)을 교화하게 하소서.

또 원하옵나니, 나 왕후(王后)의 신심(身心)이 수경(水鏡)과 같아 법계(法界)를 비추어 항상 밝히며, 금강 같은 몸은 허공과 나란히 불멸(不滅)해 칠세(七世)의 구원(久遠)까지도 함께 복리(福利)를 입게 하고, 모든 중생들 함께 불도 이루게 하소서.

번역: 김상현 교수(동국대)

‘명상, 이렇듯?’ 불교학원 워크숍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가)는 2월 14-15일 마곡사에서 ‘명상, 이렇듯?’를 주제로 겨울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는 위빠사나와 간화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위빠사나는 김재성 선임연구원(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성오 스님(홍원사 주지), 일묵 스님(수행공동체 제파와나, 김열원 법사(위빠사나 지도자), 안병남 박사(인도 델리대), 간화선은 미산 스님(중앙승가대)을 비롯해 월암 스님(백송선원장), 무각 스님(공생선원장), 박영재 교수(서강대), 혜봉 원장(맑은세상)이 발표한다. 14일 9시 조계사 앞 버스 출발. 회비 회원 3만원, 비회원 4만원. 010-5501-5589이종수 총무간사

조동섭 기자

문화유산에 대한 감정적 접근은 이제 그만!

유네스코 한국위 허권 정책본부장



“문화유산을 낭만적으로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의교·정치력을 겨루는 시대입니다. 영화 ‘적벽대전’처럼 각국이 문화유산을 콘텐츠화하는 등 고도의 계산속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2008년 승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었다. 하지만 관심이 감정적 접근에 치우쳤을 뿐 문화재에 대한 진지함은 여전히 결여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의 세계적 흐름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돼 눈

길을 끈다.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관련 국내 정책 전문가인 허권 정책본부장(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진)은 1월 17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제128회 우리 문화사랑방에서 ‘세계문화유산 보존의 국제적 흐름’을 주제로 특강했다.

허 본부장은 “1990년대 이후 아랍과 서방의 대립으로 문화재 파괴가 잇따라, 문화재를 공존·상생의 시각에서 접근하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문화유산 감상의 단계를 넘어 문화외교의 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1972년)

에 따라 지정된다. 신청부터 지정까지는 3-5년이 소요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세계문화(및 자연)유산을 비롯해 세계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간과 생물권(Man and the Biosphere: MAB) 등 크게 네 가지다. 한국에는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8점(7개 문화유산과 1개 자연유산)이 지정됐다.

문화유산 지정의 조건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로 △진정성 △유산보존관리 능력 △지역사회 참여 △모니터링 수행능력 △비교연구 등을 심사한다. 허 본부장은 “대개 2-3개 선정기준에 집중한다. 특히 진정성은 (문화재와 달리) 원형이 아닌 완성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예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충남 전법포교의 중심 마곡사!
중생교화와 전법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정진하겠습니다.

마곡사 사부대중 일동

주소 : 충남 공주군 사곡면 운암리 507 / 전화 : 041)841-6221